

하늘의 말씀은 인생들에게
완전한 가능성이며 축복이다

작성일 : 2012년 3월 27일 (화) 새벽 ~4시 40분
작성자 : 박 지혜

[최근 마음 아픈 일이 있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어 간절
히 진정 기도했습니다. 근본자가 되시는 주님은 위로
만 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심
으로 그 깨달음으로부터 힘이 나게 하셨습니다.]

* 성자 주님 말씀 *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 인생의 길을 내가 인도하니
너는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말아라.
오직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오직 내게 구하고 내게 물어라.
모든 것의 답은 나 예수이니
내가 오직 나의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오직 사랑하고 의지하여라.
지금 닥치는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근본을 치료하자.
근본을 고치고 나서 하자.
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잔가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낫다.
깨달아라.
의사가 환자의 병의 근본을 치료해야 깨끗이 낫듯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결단코 최종 목적에 도달할 수 없노라.

그러니 오직 내게 맡겨.
근본자가 되는 나 예수가 주관한다.
네 사랑도 네 마음도 내가 주관한다.
내게 맡겨라.
온전히 나와 하나 되자.
일체 되는 기쁨을 맛보아라.

제발 인생의 작은 문제에 갇혀 허우적대지 말고
천국에 와서 살아라.
창조주가 인생들에게 허락한

모든 기쁨과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길 원한다.
허락하였을 때 그 단계에 와서 살아라.
하늘의 허락은 인생들에게 완전한 가능성이다.
100%의 가능성이다.

책임분담을 다 하여
온전히 행하기만 한다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는 축복이다.
하늘이 그렇게 하라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며
가능성이고 축복이다.

하늘의 말씀에는 절대적 권능이 있는 고로
하늘의 입이 열림은
그 뜻 길이 열렸다는 것임을 알아라.
하늘이 말씀하여 허락한 것은
그 조건대로 행한다면
사탄의 험문도 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가능하기에 말씀하고,
가능케 하기 위해 말씀하고,
그 길을 열기 위해 말씀한다.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곧 길이다.
선생이 섭리사에 어떻게 길을 내는지,
곧 어떻게 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지 깨달아라.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사탄의 험문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라.

선생은 사랑의 간구로 내게 조건을 붙인다.
절대적 사랑의 기준과 조건을 세워 내 입을 여니
선생에게 주는 내 말씀의 축복을 빼앗을 자 없도다.
세상은 모르고 말하나 영계에서 보면
오차 없이 온전하고 정확하게 보이니
그의 조건에는 감히 사탄도 토를 달지 못하노라.

내가 보기에도 흠이 없고,
사탄이 보기에도 흠이 없는
절대적 사랑의 조건이다.
하늘이 보기에 흠이 없는 사랑,

곧 절대적인 차원에 너희는 올라 보았느냐.

하지 못하는 너희를 대신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뜻을 위해, 시대를 위해, 역사를 위해
선생은 매일 절대적 조건을 세운다.
온전함의 도를 깨달아라.

그 것이 얼마만큼의 몸부림인지,
조건인지 나는 말하지 못하노라.
심정으로 받아라.
내 축복과 내 말씀은 온전히 선생이로다.
선생의 조건 그대로이다.

너희가 욕이 행하는 대로 세상에서 얻는 것처럼
그는 나의 욕이니 그가 행하는 대로 내가 준다.

너희는 섭리사를 보아라.
나와 그가 행하여 이루어 낸 것을 보고
그가 어떤 자인지 알아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운 섭리사를 보아라.
진정 알기 원한다면, 영으로 보아라.
내 완전한 사랑이며
나의 최고의 자랑이 된 그를
온전히 깨달아라.
진실로 그를 나와 같이 보아라.

선생이 너희의 구원임을 알아라.
그의 조건으로 하늘의 입을 열고, 새 역사를 열고,
완전한 구원을 열고, 신부의 시대를 열었다.
고로 그가 시대의 구원이며 문이다.
내게로 오는 길이다.

시대가 이를 악하게 보고,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너희가 선생을 드러내지 않고
나 예수만 외치느냐.
너희가 외치지 않으니
내가 확실하게 말씀하노라.
그가 시대의 구원 문을 열었도다!
내가 세운 자를 중심하여라.

근본이 되는 나 예수에게 오는
단 하나의 길이 있으니, 선생이다.

시대 열쇠를 가진 자다.
그의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니,
이 역사는 나와 그의 역사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신 온전히 하여
그를 바라보아라.

선생의 방법대로 하여라.
내가 세웠으니
그의 방법이 곧 나의 방법이다.
그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다.
선생이 너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의 길로 와라.
그와 함께 나의 길로 와라.
사랑한다.
나의 욕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는 주 예수니라.